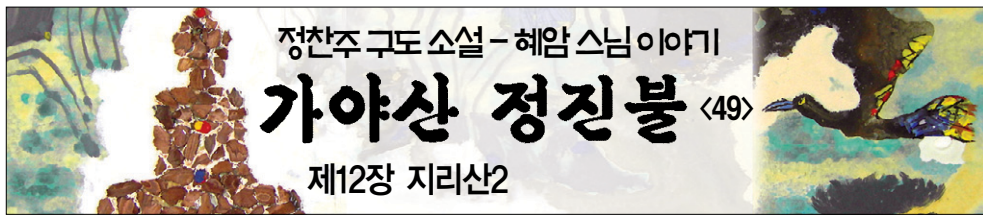


“중은 식탐이 많으면 안 된다 오늘부터는 하루 한끼만 먹는다”



도행 스님이 문수암으로 넘어가는 고갯마루에 올라 웃으며 말했다.

“암자생활이 좋긴 한데 혼자서 오래 살다보면 말하는 것이 싫어지고 괴팍해져요. 자기도 모르게 말이 떨어지버린다고 하하하. 그러나 중이 수행하는 것은 자신만 잘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무언가 들려주기 위해서지요.”

정간 스님도 동감했다.

“깊은 산중 암자에서 혼자 살다 보면 괴짜로 변합니다. 수행은 원만해지기 위해 하는 것인데 오래 살다 보면 등골지 못하고 모가 납니다. 실제로 제가 혼자 살아보니 사람이 싫어집니다. 저자거리 사람들은 오신채를 먹으니 냄새가 나 가까이 오는 것이 싫어집니다. 그러나 모가 나는 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산중 토틀에 살다가도 모가 날 때쯤이면 대중 생활을 하러 산 아래 큰골로 내려옵니다.”

두 스님의 이야기에 대연거사는 부러움을 느꼈다. 그리고 보니 두 스님의 언행에는 뾰족한 모가 보이지 않았다. 비바람에 오랜 동안 깎인 돌부처처럼 편안하고 원만했다. 정간 스님이 문수암 가는 길에 놓인 돌계단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우리 노장님께서 40대에 원각 스님을 데리고 놓은 돌계단입니다. 그리고 저 건너편 웅담 산자락에서는

여연 스님이 기억하는 은사 해암 스님의 행장은 정확했다.

해암 스님은 53세 때 남해 용문사로 들어가 출가 후 처음으로 회상을 열어 운수남자들을 지도했고, 54세 때는 해인사에서 하안거를 마치고 각화사 동암으로 올라가 2년 동안 현우, 현기 수좌 등과 함께 두문불출 옹맹 정진하였던 것이다.

이후 1975년 겨울에는 송광사 선방에서 동안거를 하고 이듬해에는 지리산 백장암을 거쳐 칠불암에서 하안거와 동안거를 마쳤는데, 이때 정진대중은 현우, 활안, 성우, 현기, 인각, 원웅 수좌 등 20여 명이였다.

칠불선원에서의 정진은 중국 백장산사의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一日不作 一日不食)’는 청규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었다. 해암 스님은 대중 모두에게 지계를 하나씩 지급하여 낮에는 운력하고 밤에는 공부하도록 했다. 대중들은 외부에서 공양물이나 보시정재가 들어오면 쟁계사 입구까지 내려가 하루에도 몇 번이나 지계집을 하였다. 비바람이 부는 날에도 예외 없이 지계를 지고 오르내렸다.

그해 겨울 대중이 칠불암의 운상선원을 중수하던 중, 해암 스님은 먼지 속에서 홀연히 나타난 백의노승을 만났다. 노승이 해암 스님에게 다음과 같은 계승을 전해주었다.

“버스를 갈아타야 했어요. 춘양부터는 걸어서 가는 데 지금 무어스님이 사시는 축사사를 지나 산길을 돌고 돌아 각화사로 갔어요. 각화사에 도착하니 캄캄한 밤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어 그랬는지 각화사 주지스님이 자고 올라가라고 만류하는데도 촛불을 켜고 호랑이가 어슬렁거린다는 동암으로 혼자 올라갑니다.”

여연이 동암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쯤이었다. 그때까지도 해암 스님을 비롯하여 네다섯 명의 수좌들이 큰방에서 가부좌를 틀고 정진하고 있었다. 여연은 문득 허기를 느꼈다. 촛불을 들고 동암을 오를 때는 오직 은사스님만 생각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비로소 배가 고팠다.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사먹을 줄도 모르던 학인시절이었다. 오신채가 든 음식을 먹지 못하던 때였다. 한 번은 자장면이 생각 나 중국집에 들어갔다가 주인에게 이것저것 빼라고 간섭하다가 쫓겨난 적도 있었다.

여연은 대중정진이 끝날 때까지 마당에서 기다렸다. 해암 스님이 죽비를 치자 그제야 수좌들이 가부좌를 풀고 밖으로 나왔다. 여연은 해암 스님에게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해암 스님은 말없이 화강실로 가버렸다. 한 스님이 여연을 보더니 부엌으로 들어가 석유코를 파고 밀가루 반죽을 만들었다. 이북에서 내려와 출가한 현우 스님이였다.

“현우 스님은 세상에 나타나지 않은 도인입니다. 상을 내지 않은 훌륭한 도인이신데 그때 나에게 수제비를 풀어주셨습니다. 점심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우리스님은 모든 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연은 정진일이 수제비를 먹었다. 현우 스님이 풀어준 수제비를 다 먹어치웠다. 하루 종일 졸졸 굶었던 터라 자신도 모르게 과식했다. 피곤한 데다 과식하니 몸이 천근천석 가라앉는 것 같았다. 결국 이튿날 몸에 두드러기가 났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수제비를 먹은 탓이었다. 한 스님이 민간요법을 썼다. 온몸에 물푸레 나무를 태운 재를 발라주었다. 해암 스님이 여연의 불룩한 배를 보더니 ‘저 음식귀신 보라, 저 귀신!’ 하는 것처럼 혀를 찼다.

“동암에서 우리스님에게 힘들게 인사드리고 해인사로 돌아왔다가 강원 출업하고 상무주암으로 갔습니다. 사실은 송광사에서 살고 싶어서 미리 방부를 들여놓고 인사를 갔다가 우리스님에게 불참해 상무주암에서 정진하게 되었습니다.”

해암 스님은 상좌들에게 늘 지리산의 삼대 토틀로 함양의 금대와 상무주암, 그리고 남원의 백장암을 지목했다. 금대는 3일만에, 백장암은 5일만에, 상무주암은 7일만에 도를 깨닫는 명당이라고 말했다. 여연은 할 수 없이 7일이면 깨닫는다는 상무주암에서 불참해 정진하고 싶었던 송광사 선방으로 가지 못했다. 햇중 정견도 와 있었다.

“힘이 장사인 내 사제 정견 스님도 왔어요. 젊은 우리가 얼마나 밥을 많이 먹을 때입니까. 그러나 은사스님이 소식을 하니 바투를 펴놓고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눈치만 보았지요.”

해암 스님의 정진가풍은 밥을 적게 먹는 것이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해암 스님 혼자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일종식을 할 뻔. 다섯 명의 대중에게는 강요하지 않았다. 대중이 하루에 세 끼를 먹어도 내버려두었다.

이윽고 한 달이 지나자 대중을 다잡았다. 해암 스님이 대중이 다 모인 데서 말했다.

“중은 식탐이 많으면 안 된다. 오늘부터는 하루 한 끼만 먹는다.”

여연과 정견은 일종식을 견디지 못했다. 그래서 부엌으로 들어가 남은 밥을 몰래 먹었다. 비구니가 사는 문수암으로 가 허기를 달랠라.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다. 해암 스님이 밥을 훔쳐 먹는다는 것을 알고서 먹

을 만큼만 내주고는 부엌문에 자물쇠를 채워버렸다. 문수암을 가지 못하게 금족령을 내렸다.

날이 갈수록 정진의 강도는 더해졌다. 가난하고 고생스러운 데서 도가 익는다며 날씨가 추워져도 방에 불을 때지 못하게 했다. 잠을 못 자게 하기 위해서였다. 나무를 아껴야 한다고 목욕물도 많이 데우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벌벌 떨면서 몸에 미지근한 물을 한두 번 끼얹는 것이 상무주암의 목욕이었다. 대중이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아, 독하다. 독해! 장작이 얼마나 든다고 방에 불도 때지 못하게 하시나.”

두 달이 지나고 나서는 옹맹정진과 단식을 시작했다. 잠을 자지 않고 장좌불와하는 것이 옹맹정진인데, 거기다 단식까지 지보태졌다.

“해인사에서도 일 년에 두 번씩 하는 옹맹정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것도 먹지 않는 단식 옹맹정진이었어요. 일주일이나 지나니까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심일째에는 정말 괴롭고 괴로웠어요. 망상이 막 들어요. 영감을 죽일 수는 없고 어디다 밀어뜨려버릴까 하는 망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정도 망상을 하다가 정신이 돌아와 포기했지요. 망상으로 이틀을 버티었으니 얼마나 기막힌 망상입니까.”

단식 옹맹정진에 들어간 지 14일째부터는 자신감이 생겼다. 가끔 물을 마실 뿐 아무 것



해암은 지리산 백장암 거쳐 칠불암서 정진

20일간 대중에게 옹맹정진·단신시켜

대중은 새롭게 태어나게 해준 해암에게 ‘눈물’

산삼을 캔 사람이 있습니다.”

지리산의 들멧이 한 개와 풀 한 포기까지 정이 든 순박한 말투였다. 그래서 정견 스님을 잘 아는 도반들이, 지리산 마을에서 태어나 성장한 스님을 두고 ‘지리산 반달곰’이라고 부르는 것 같았다.

“지리산 벽송사 아랫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으니 이곳을 떠나 본 적이 없어요. 19살에 중 패 가지고 상무주암에 오니 늦어졌어요. 노장님께서 사형 여연 스님과 서너 명을 데리고 정진하고 계셨습니다.”

그제야 대연 거사는 여연 스님을 떠올리고는 상무주암을 돌아보았다. 그러나 산등성이에 가려 상무주암은 보이지 않았다. 문득 대연 거사는 몸을 떨었다. 지리산 허공에 떠 있는 구름 한 조각처럼 생긴 상무주암처럼 수행자들의 심혼(心魂)에 불을 붙인 처절한 토틀도 없었을 것 같았다.

강진 백련암 다실에서 들은 여연 스님의 이야기가 대연 거사의 심혼에도 불을 당겼다. 가슴을 뜨겁게 했다.

“78년도 강원 졸업하고 나서는 일입니다. 우리스님은 남해 용문사에서 대중을 지도하시다가 태백산 동암으로, 다시 나와 해인사 극락전에 계시다가 칠불선원으로 가셨지요.”

塵心金剛剛
照見蓮華願志

때 묻은 뾰족한 마음을 금강검으로 베어내서 연꽃을 비추어 보아 저비로써 중생을 설화하여 보살피라.

그런 뒤 백의노승은 해암 스님에게 ‘취모검을 들지 어다(拈起 吹毛劍)’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우리 스님은 칠불 운상선원에서 종교적인 체험을 하셨던 겁니다. 백의노승의 계승 중에 ‘중생을 설화하여 보살피라’는 부분은 화화중생의 시절인연이 도래했음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해요. 아무튼 그건 우리 스님의 일이고, 저는 스님께서 동암에 계시 때부터 인사를 드리러 다녔어요.”

여연은 해인사 강원시절 해제를 하면 반드시 해암 스님에게 인사하러 갔다. 각화사 동암까지 버스를 타고 하고 차편이 없는 먼 길을 걸어서 갔다.

“스님한테 인사를 가는 데 힘들었어요. 대구에서 봉화, 영주가 엄청 먼 거리거든요. 당시 해인사에서 대구 나가는 데 4시간 반 걸렸습니. 거기서 또 영주 가려면 바로 가는 버스가 없어 김천으로 나가 봉화가

“내 모습이 이러했던가 이럴 수 있을까

발레리의 상징적인 시들이 막 스쳐가는 겁니다”

도 먹지 않는데도 몸에 힘이 생기고 만사가 개운했다. 해암 스님이 대중의 변화를 눈치 채고 말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 아예 20일을 채워버리자.”

대중 누구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다. 담담하게 20일을 채웠다. 모두가 심신의 변화를 체험했다. 여연은 단식 옹맹정진을 끝냈다는 생각보다는 깊은 동면에서 깨어났다는 기분이 들었다. 눈을 뜨고 보니 세상이 눈부셨다. 지리산의 모든 생명들이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자신의 모습도 눈이 부셨다. 거울에 비친 창백한 자신의 모습이 아름답기만 했다.

“내 모습이 이러했던가. 이럴 수 있을까. 발레리의 상징적인 시들이 막 스쳐가는 겁니다. 소위 깨달음이 라는 암호가 풀릴 것 같아 황홀했습니다. 지견 같은 것이었지요. 그걸 계속 밀고 나갔어야 했는데 아쉬워

요.”

그때가 해제를 15일 남겨둔 시점이었다. 이번에는 해암 스님이 백팔찬화문을 외게 하면서 절을 시켰다. 일주일 동안 만팔찬화문을 하게 했다. 젊은 문수암에서 사는 두 명의 비구니도 동참했다. 단식한 뒤였으므로 죽도 먹지 못하고 미음을 겨우 목에 넘기면서 절을 했다. 일주일 동안 대중 모두가 만팔찬화문을 마쳤다.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대중 모두가 울었다. 자신의 무한한 능력에 감동했고, 새롭게 태어나게 해준 해암 스님이 고마워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계속>

본회 연재본 <49>회는 본지 761호에 게재되어야 할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연재의 순서에 착오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해암 대중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제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심으로써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정진안내

- 철야 옹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동안 거결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제
- 매년 설날, 중앙절 (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 (아미타재일)

해인사 원당암
감원 복산 원각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www.wondangam.org

태도를 배우려면
불을 이념 내두하여
여기나 내려라도 수지를 말지어다.
불꽃이 나타나고 그해가 도리어야
비로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네.

- 해암대중사 법어 -